

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원들께,

안녕하십니까? 선생님.

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이승연이라고 합니다. 현재 한국 국립국어원의 <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K-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> 사업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.

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. 2022-2023년에 걸쳐 개발하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 국립국어원의 K-티처 프로그램에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자 메일을 드립니다.

K-티처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에서 국외 한국어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총 130차시(이론 100차시, 실습 30차시, 각 차시 25분 내외)로 개발되었으며, 별도의 비용 없이 국립국어원의 '한국어교수학습센터'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K-티처 프로그램은 한국어학, 한국어교육학, 한국문화, 한국어교육 실습 각 영역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K-티처 프로그램의 수강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국외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
- 2) 국외 대학의 한국(어)학, 한국어교육학 관련 전공 학생들

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'K-티처 프로그램 이수증'과 'K-티처 프로그램 오픈배지'가 발급됩니다.

수강 과목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K-티처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*한국어교수학습센터** <https://kcenter.korean.go.kr/kcenter/>

국립국어원과 MOU를 맺은 일본한국어교육학회(JAKLE) 회원 여러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수강 조건이 부여되오니 단체 접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또한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나 한국학,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국어능력 중급2 이상이면 이 과정을 수강할 자격이 주어집니다. 학생들의 경우에도 단체 접수가 가능하며, 각 대학의 선생님께서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단체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. 단체 접수를 할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재학증명서나 TOPIK 성

적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개별 신청보다는 단체 접수가 훨씬 간편합니다.

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아래 K-티처 프로그램 공식 이메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1. 프로그램 관련 문의 ✉ K-티처 공식 이메일 [K-teacher@kakao.com](mailto:K-teacher@kakao.com)

2. JAKLE 학회 단체 접수 문의 ✉ JAKLE 총무 이메일 [jaklesoumu@gmail.com](mailto:jaklesoumu@gmail.com)

3. JAKLE 학회 단체 접수 신청 ✉ <https://forms.office.com/r/h0haPOydJQ>

(상기 링크 또는 QR코드에서 신청 가능)



4. 학생 단체 접수 신청 ✉ 대학별 대표 선생님께서 신청서(학생 명단 포함)를 작성해서 K-티처 공식 이메일 ([K-teacher@kakao.com](mailto:K-teacher@kakao.com)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접수 기한은 6월 14일(금)까지이며 7월 1일부터 시작될 4기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.

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리겠습니다.

K-티처 과정은 모두 130차시, 즉 25분 내외의 동영상 강의 13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국립국어원에서는 해외 대학과의 협약(MOU)을 기반으로 K-티처 프로그램을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가령, K-티처 프로그램의 130차시 전체를 이수하면 9학점, 대학 및 학과에서 선택한 과목 40~45차시를 이수하면 3학점을 인정하는 방식 등입니다. K-티처 프로그램을 귀 대학의 학점 연계 과정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상기 1. K-티처 공식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일본한국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.

2024년 5월

한국 국립국어원 K-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팀을 대표하여

이승연 올림